김희수 군수 "아름답고 미래 있는 진도 건설하겠다"

●민선 8기 2주년

민원서비스 평가 '가'등급 달성…6대 군정 운영 방향 제시

군민 맞춤 복지·미래인재 양성 집중 등 지역 성장 발판 마련

진도군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실적 기준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도군 제공>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희수 진도군수가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진도'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3년차 운영계획 등을 안내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장군 이래 최대 공모사업비 70건에 1천35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도 ▲전남형 균형발전 사업 3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200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100억원 등 30건에 964억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지역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주요 평가 결과도 수직 상승하는 성적을 거뒀다. 2022년 '라'등급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지난해 3단계 상승한 '가' 등급을 달성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3년차에는 '화합하는 군민!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진도'를 만들기 위해 6대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수산업을 육성해 다함께 잘사는 진도를 만든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임대농장 확대 조성으로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화작물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공모사업(200억원)을 추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2026년까지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100억원)를 건립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50억원)을 추진한다.

군민 맞춤 복지에도 주력한다. 장날 시장 인근 승강장에 성인용 보행기를 비치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혹한기·혹서기 마을경로당 쉼터 생활 지원,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 12만원 목욕·이미용 바우처를 제공해 청결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는 관내 농어촌버스를 전노선 무료 운행했다.

체계적인 출산·양육·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든다. 2025년까지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전남 최초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횟수 제한 없이 1일 최대 5만원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기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 인재 양성에도 집중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입학축하금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다시 찾아오는 진도군을 만든다. 2027년까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158억원)과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143억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新조도대교 건설 및 가사대교 건설, 진도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지방도 801호선(해남산이-우수영) 구간 도로개설 건의, 호남고속철도 노선 진도 연장, 서망항 국가어항 확장사업(450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청정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내일 개장

내달 18일까지 운영…모래 조각품 전시·치맥 페스티벌 등 다채

고운 모래와 해송 숲, 탁 트인 청정 바다를 자랑하는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사진)이 13일 개장해 8월18일까지 피서객을 맞이 한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했으며, 세계 5천개 해수욕장 중 10개소만 지정하는 '우수 해수욕장'으로 꼽혀 'Special mention' 상을 받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완도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인명 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환경 요원 등 140여명을 채용해 피서객 안전 확보와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지 명사십리 외 보길 중리 해수욕장 등 10개소의 해수욕장은 19일 일제히 개장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해양치유를 주제로 하는 ▲모래 조각품 전시와 플라잉 보드 쇼(8월10일) ▲비치발리볼 대회(8월3~4일) ▲패들보드와 카약 등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8월3~18일)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8월9~10일) ▲플로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8월3일에는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콘서트'를 열어 피서객들에게 여름밤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치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 증정과 8월31일까지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후 완도타워와 장보고기념관을 찾으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완도타워 모노레일(2천원), 짚라인(3천원), 청해포구 촬영장 2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현철 관광과장은 "이번 여름휴가는 명사십리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리고 해양치유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지 완도로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공룡박물관,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오픈

내일부터…슬라이드·바닥분수 조성 등 각종 즐길거리 풍성

해남군이 오는 13일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을 개장한다. <사진>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룡박물관 내에 위치한 물놀이 체험장은 물놀이터와 함께 슬라이드, 바닥분수 등이 조성돼 여름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룡 물놀이 체험장은 유아·어린이에 특화된 시설물로 13세 어린이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올해 새롭게 시설된 슬라이드 2종은 130㎝ 이상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수유실, 샤워실, 2층 휴게공간 등도 별도로 마련했다.

물놀이장은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시마다 50분씩 운영한다. 개장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특히 이번 개장 기간에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주말 동안 물놀이장 밖 체험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플레이콘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화·수·목요일에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워터볼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발굴체험, 쥐라기랜드 꾸미기,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지하 거대공룡실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족들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시원한 물놀이, 즐거운 볼거리, 재미있는 즐길거리를 모두 갖춘 해남 공룡박물관으로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 자원 활용…최적 서비스 제공 높이 평가

함평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더-K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최적의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성과와 지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2023년 우수기관, 2024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자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군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백세 함평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인천 백령도 이장단과 섬 주민들이 지난 10일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전남지역 섬 관광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제공>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백령도 '평화의 섬' 만들겠다"

백령도 섬 주민, 목포·신안 섬 벤치마킹 현장 방문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이 백령도 섬 주민들을 재회해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1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목포 소재 청사 3층 KIDI홀에 백령도 이장단과 섬 주민, 백령면 관계자 등 20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8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열린 '제27회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에 이은 백령도 섬 주민들의 화답 방문으로 한국섬진흥원과 22일 만에 목포에서 재회했다.

백령도 섬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다르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신안의 섬 관광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반월·박지도)과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목포해상케이블카 등을 둘러봤다.

한국섬진흥원은 관할 지자체와 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백령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정, 홍보할 계획이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안보의 섬' 연평도와 함께 서해5도의 요충지 백령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한국섬진흥원과 인천시 옹진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교류함으로써 'K-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여름철 수산물 합동 위생점검 실시

영광군은 "최근 여름철 비브리오균 발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산물 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했으며 마트 내 수산코너 5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유통기준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상태 ▲비브리오균 오염 방지를 위한 수족관 온도관리(15℃ 이하)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한 영광군은 수산물 안전 구매·섭취를 위해 ▲수산물 구입 시 5℃ 이하로 냉장 보관 ▲85℃ 이상 충분히 가열조리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조리기구(칼·도마 등)는 소독(열탕 처리 등) 및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 사용 ▲장갑 착용 준수를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내 수산물 유통·판매처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혁신위, 한우가격 하락 지원 논의

축산산림분과위 첫 정기회 개최…신임 혁신위원 위촉도

영암군은 11일 "지난 8일 군청에서 혁신위원회 축산산림분과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축산산림분과위원회로 변경된 다음 올해 처음 개최된 회의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로 위촉된 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한우가격 하락 지원 ▲경축순환농업 축산분뇨 처리 및 추진 계획(안) ▲축사신축 거리 제한 완화 ▲영암한우 브랜드 통합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 등의 안건을 토론했다.

조용현 축산산림분과 위원장은 "축산산림분과위가 자문기구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밀도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축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